

悲劇小說

# 千里遠情

정 원 리 련



113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最新式  
悲劇小説

# 千里遠情

登錄番	3152
分類番	
圖書番	

천

리

원

정

1

덧엮는 거슨 세월이라 어는 듯도리 춘광이 다 지니 가고 녹음은 을々 청々 하여 제  
물장막을 드리운 듯 하더니 하로 밤새에 연지의 순환을 따라 단이슬을 모진서리  
을 미저 술々 이나리는 형상은 짐짓 세류 동풍에 빗뚫이 떠러 지는 듯 먼 산에 자진  
안기는 수목 사이로 도라드러 파릇파릇한 입사귀 사이로 훑터 지기를 열마나  
엮는 지어 제 밤에 곱든 것드러 하로 밤 사이에 변하여 누른 입사귀 되어 하나 둘씩  
자조 떠러지며 이전 등걸을 리별하고 편々 이 날이 이곳에 일터 미남자가 일필 청  
려에 몸을 의지하여 안지엮는디 그 뒤에는 조곰 아흔 다방머리 총각 아히가 첫  
죽을 손에 들고 싸라 섰는 지라  
나귀우에 안지엮든 미남자가 총각 아히를 천쇠야 하고 부르더니 인히 나귀에서  
나리며 이이 천쇠야 어딴서 개집에 숨은 우름소리기 은은이 들이는 듯하니 고이  
흔일도 만타고 귀을 기우려 이욕이 듯더니 천쇠더러 잠시 섰스라 하고 우름소  
리 나노 곳을 살피어 너심에 자탄을 하는 도다 엇더한 집 녀인이 무슴 서름이 있셔



서 점은날길흔곳에서 저릿케이 호호는고 세상에 서를파고심잇는 사람은나하  
는뿐인가호엿더니 남녁간에회포잇는사람이 한두리안인가보다호고 우를소리  
나는곳을찾차 산곡으로드러가다가 한곳에머물너 바라보니 웃더흔일키너즈가  
손에다무숨오락이을들고 산뜻동이 슈목사이에서 섬섬옥슈로 나무를뚫들고  
정신업시슬피우는지라

도령이더욱외심호여 점점갓가이 드러가되 너즈가울기에 참쳐호여 사람이업  
헤이르느줄를 서다지못호는지라 도령이크게의혹호여 기침흔번을호여 인기쳐  
을 니이려다가 다시성각을 호여본다 심산궁곡사이에서 저와갓치 허겨가며우  
니 필연코 무숨익회를 참지못호여 저손에든 오락이로 목을미여 죽으려호미  
로다 자셰이살피여 보니나흔 십오륙세가량된 처즈아히라 한참우뚱건이섯다  
가 기침한번을크게호고 온화흔목소리로

규슈는어느집규슈인디 이점은날 무인산중에 드러와우는요호디 그쳐자가  
정신업시 서를이북밧쳐 한참우는관에 별안간남즈에 기침소리를듯고 안  
놀나 도라다보니 단아흔 일위소년이 것헤와셔 우는곡절을 못느지라 슈피  
호를 여제로참고 도라셔셔디답을호다 나는무숨회포가 잇는지 올만흔일이  
잇셔셔올건니와 귀키는무숨사닥에 관개업는일을 못나잇가 그옥이성각호온

디 념우다사호싯듯 호오니 곳호여무르실것업시 밧비도라가는것이 맛당호가  
호느이다

도령이 회답호는말을 듯고 니럼에헤오디 저너즈는 정영코천인에 집 즈손은  
안니오 반다시 반가규슈가 분명호디 어이 혼사정으로 이팔청춘에썩다운목  
숨을자 결코저호는고 니가이곳에 이르지안이호여 저관경을 보지못호였스  
면 혈일업건이와 임이이곳에 이르려 사름이죽으려 호는것슬보고 그저도라  
가면 이는맛치강가에서 노논어린아희를 보고그저 도라감과 갓을지니 이는  
결단코 인정간에 참아못할바이라호고 다시말을호는도다

사름에 지극히 중흔거슨 제일성명이라 이제규슈에 동정을 살필진디 천금가흔  
귀중흔몸을 경소리여이여 한줄기오락이로 나무아리 참혹호고흔이 되고저호니  
이는인정상 각갑지못호는 일ियो 쏘는일시원동흔일을 참지못호여 부모에유체를  
등한이 바리고저호니 이는 불효막심흔 일이라 속남에이르기를 죽을병에도사  
논약이 잇다호니 웃지남녀간 구구흔소사를 협의호여 회포를 설화치못호것무  
엇이며 함을며 니가이곳에 이른것도 우연흔 일이라 이루지못호지니 웃지죽을  
병에사논약이 업슬줄 알ियो 처즈가 도령에 간절이못는말에 마음이조곰 감동  
이되여 비로써 온순흔말로 사례을호다



나의 죽고져 하는 사정은 그욕이 드르실것 업습고 또흔드르신다하여도 마음  
만불안 할실뿐이오니 바라건디 귀익은속히 도라가 시와 일기녀즈에 소원을  
이루게하여 원망을 취치마르소서 만일하루을 더살면 하루욕이 더하고 잇들  
을더살면 잇들욕이 잇는터이라 귀익이 만일 나의 죽고져 하는일을 저회할것  
곳흐면 이는 은혜가 안이요 도리어 적악이 적지아니할지니 제반생각함을제  
서 남의평생 디계를 방히치마르소서

한더눈물이 비오듯 하는지라

드령은근본마음이 어질고 회포가무궁호 사람이라 심상흔금슈에 소리만드려  
도 심상되는씨가 만흔터인디 이제쳐즈에 말을드름이 더욱 비감하여 다시말  
을 하는도다

속담에 이르기를 죽은사람은 무당에임도 비려서말을 한다는데 임이죽을바  
에야 그죽는 사실을 말하지못할진 무엇인뇨 니가그사실을 드려보와서 석죽  
을만흔 경위에는 죽음을 허락하고 도라갈것이요 가이죽지 안이홀경 위에는  
결단코물너가지을 아니홀터이니 바라건디 녀즈에 붓그리는 티도를 저마리  
고 한번나를 위하여 죽고져하는 사정을 설화호소서

쳐즈가 너럼에 생각호되 저사람은 참으로 다정흔 남즈가 안인가 저갓치 성심

으로 못논리에 일할한호하면 그성심을 저바람이니 한번실정을 도파하여 조  
흔뜻을 위로하리라하고 비로소 한물을 거꾸우고 전후 사정을 설화한다

귀익이 이제한 원한을 사정을 여러번 무로시니 감겨호마음이 적지아니할  
건이와 나부성호를호와 터간한일습나이다 천호물은 근본 평양성디에사  
는박판물에 나식인디 나와부모게옵서 무남독녀 나하나를 금지옥업갓치이  
지중지기로실전에 항상마음에나하나를 고이길너 슬하에자미를보실가호시  
더니 나와는이 철제적에 불행이 모친게옵서 작고하시느고로 철모르논어  
린아하라 웃지호줄아지못하고 다만부친에 싸뜻호정을바다가며 철이날만호  
즈 부친게옵서 우연득병하야 이제상을 리별호실적에 는의집은 벌너 누덕독  
즈라 죽리간 일가가 업느고로 인종시에 집안저산을 상속호실곳이업서 세교  
로지니는 박병환이라 하는사람이 잇는디 그사람은 경성지점은형지비인(京  
城銀行支配人)이요 겸하야 동성동본이라 나의선친과 소시적 붓터 결의  
형제를되지어 하집안과 갓치지님으로 자연이나의나이다 어일뿐 또흔남의일  
을자세이 보살피여 주는사람이 업느고로 박병환의게 저산을 정리하야 문  
부를 주시며 아못조록 나의아이장성하야 출가시에 주라고 유언에말씀 하시  
하시엿는디 곳셔나의 는이는 십삼세 적이라 부모양위분 게옵서 구물호시니



런지가 아득흔듯 웃지듯 곱흔든 말슴이야 이 자리에서 장황이 할을 잇가 선천의  
장례을 지니인후 다만 니빈거리에 남조라고는 박명환이 하나뿐이라 박시가  
미일 나에집에 오시며 글도가라쳐 주시며 후시니가 숨흔 기식을 외면에 나타  
니이면 간권이 위로를 식이시며 천조손이느 다름업시 기르시기를 금년까지  
사년간이라 나날이갈소록 천밀흔 정의는 천숙녀의 다름업흔고로 조연 어린  
마음에 어리광도 부려보며 추호만흔 소소흔일이라도 박시에게 문의을 하야  
가며 류슈갓흔 세월을 보닐적에 웃지박시의 마음이 음흉흔 주을 씌엔들  
싱각 하엿스리오 작년 여름에 비로서 부천에 삼상을 맛참이 웃지 비감하고  
망극흔 마음이 업섯스리오 어느날 밤인지 조제이싱각지는 못하겟스느 나의  
마음이 울적하고 비창하야 초당속에 호을로 안지엿슬 마음이적어 영창문을  
열고보니 달은중천에 높히소사 명낭하기 이을티업고 초당압연못에 잇는 일  
엽소선은 외로운나을 청하느듯 하게 출렁／＼ 하느니라 일기시비를 명하야  
초롱에 불을켜달고 비에을느 잠시울적흔 마음을 달로버슬 삼아위로코저할지  
음 맛차박시가 이르기로 반가이 영접하야 비에서 갓치선류를하느니느의마  
음은 오히려 비창하야 지느니라

전일에는 우리부천을 되시고 이와갓치 선류를 하엿느니 웃지타오날날은 부

천을되시지 못하고 이몸한느만 선류를 하느고하야 여러가지 비감흔싱각이  
흥흥에 비회흔이 눈물이떠려져 웃기슬적시느줄 세가지못하느니 박시가손에  
쥐엿든 슈건으로 느의흐르느 눈물을써서주느니라 어련마음에 단지숨흔싱각  
만느서 아미를숨이여 박시무릅에 디이고 올기를 얼마타가 숨흔눈물을여지  
로 거두우고 눈을드러보니 엽에잇는 시비는 간곳업고 또호초롱에 불도써지  
엿느니 박시느느의몸을어르만지면서 두어말에 음흉흔 수리를 하느고로나  
는준절이디답하고 허여졌느니 웃지그러흔 말을전과하리오 후시취중에 말노  
그리하엿느싱각하고 전일파갓치 지느니 그후로부터는 이리탈을 잡아느  
의심복노비를 니여보내고 저리탈을 잡아 니여보느기를 차례을 하엿느니 그  
럭저럭 오류명시비가 다느아가고 단지 금단이라하느 시비하느뿐인디 그는  
나의심복지인이 아니라 나에마음에 얼마콤불합하지만 당장압해사름이업는  
고로 자연이슈속갓치 부리기하느 하로에도 몇번씩 이목에 버서나게 일을  
하지만 그을웃지 번번이말을하리오 속담에 소경된 나그르다 하난일체로나  
의 팔조만 한단할뿐이더니 어제밤에 이르러서는 금단이몸이 불평함을 빙조  
하고 저이방에 나아가 편이쉬겟다 하느고로 즉시허락하고 나느초당속에 호  
노 안지여 동축을받키고 주역공부를 하느니 별안간난티업는 음풍이 이는



## 천 리 원 정

듯 창밖에서 인적이느듯 혼고로 괴이한 일도 만나고 칙불마음이 전어 등  
촉을 높이 고 침석에 나갈 지음 문열이는 소리가 나지 못었시 별악갓치 달여 드  
러 겁옥코져 하는 고로 텅지가 아득 웃지 할 줄 아지 못하야 발악을 하며 방석을  
놓였스니 엇지 녀자의 힘으로 건장한 남자에 힘을 저당하리오 입으로 물고 두  
손으로 그놈의 몸을 트드며 한참이리 신고 할 지음 금단이 부른 듯이 뉘어 드러오  
며 더 경야 하는 말이 에구 괴이한 일도 만다 엇지 하면 병옥갓흔 우 리 아갓시  
게 읊서 저런 누추한 형위를 할 실줄 씬에는 생각하였스리요 하며 도로 는 가자 그  
놈도 고만 도주를 하는 지라

그제는 그놈에게 욕을 당할 뻔한 분한 마음보다 오히려 금단의 말이 더욱 분한  
지라 일신은 셤이고 잠은 영영이 안이 와서 고성중에 날이 발그딕 금단이 드러  
오며 싱글々 웃더니 간능한 목소리로 어제 밤에 그 깨무숨 모양 이에요 하며  
되지 못할 말도 형설슈설 하는 지라 버선복이라 한 줄 뒤집지 못하고 이을 엇지  
리오 영천슈 각갑지 못하야 싯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 일러니 더욱 박시가 이르  
는 고로 슈괴함을 참지 못하야 하는 더 요물 갓흔 금단이 니여다 르며 작야에  
경권을 설화하는 지라

음종훈박시논 이육이 뜻더이 느를 위로하는 듯 하는 말이 니가 불려 놓야 전사에

## 천 리 원 정

가 할 곳에 혼인치 못함으로 그러 할 일이 잇섯다 하며 금단에게 당부하기  
을 할 여 누설치 말느 하는 지라 니가 염해한 지여 그와 갓치 미디을 지여 말하는 소  
리를 들을 적에 얼마느 금창이 메여 졌스리요 죠석을 더 하는 먹을 싱각이 잇  
스며 밤이 되느 잠잘 생각 이 잇스리요 오늘 밤에도 금단이 제 방에 나아가  
지겟다 하는 고로 허락은 하였스니 무숨 불척흔 익화가 또 당도 할는지 알 슈업서  
천변만 변성각을 하야 보니 남의게 누추한 일혹을 드러가며 구구이사는 것보  
담 부모에 유례로써 더러운 욕은 당치 아니하리라는 뜻이 한번 결단됨이 녀  
자에 편성이라 다시는 도리 칼 슈업서 집을 떠느 죽을 곳을 구하다가 텅헿으로  
이곳을 차져와서 목을 띠여 죽으려 할 즉 자연이 숨은 회포가 구의 산 구름 일듯  
하야 잠간 체을 흠이 읊더니 공교이 귀공을 만느 이씨 서지 죽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함은 도로여 불행이 막심 하여이다

하며 눈물이 비오듯 하는 지라 도령이 규슈에 일장 설화를 드름이 말々이 가삼  
을 쥔너 분한 회포를 자아느는 지라 또 눈물을 흘리어 왈

이제 규슈의 사정을 드른 즉 가련코이 연하기 청량업스니 마음을 잠시 돌이켜 나  
의 말슴을 드려 보소서 지금 나의 집은 경성인 더 나의 부친게 읊서 금광업(金鑛  
業)으로 하야금 함경도사에 내려가 신지가 일년이 파하였는 더 오늘 서서 서



선일장도 업는고로 는의모친게옵서 울々지심을 참지 못하시와 벤々치 못하  
이몸으로 하여금 부친전에 단여오라 하시기로 지금가는길인디 이곳에서 이  
와갓치 규슈를만남은 우연치안은 일이라 조금도 누추하게 생각지 마옵시고  
잠시익회를 피할실차로 는의집이 비록누추하남아 잠시가심이 조흔듯하와  
다한디 쳐즈가 도령에말에 조곰감동이 되엿는지 슈괴함을참고 잉술을반기  
하야

귀공게옵서 천하몸에 사정으로 인하여 가실길이더디와 죄송하온중엇지되  
으로저지 가기를바라올잇가 원컨디귀공게옵서는 총々하신길을 어서써는  
소셔 설혹너가 귀공덕에을 간다하기로 공에모친게옵서 응당하락하시여거  
두어두실이 만무하오니 공연흔심역만 허비치마옵시고 도라가심을 바라  
이다

하여히음업시 눈물을 흘리는지라 도령이 비창함을 참고다시말하되

이제규슈의말도 건리할듯하느 나의를생각에는 모친게옵서 허락지 아니하실  
만무할듯하니 가심을바라오며 오히려 규슈게옵서 누지에게실지 밋쳐생각지  
못하고 말슴을 하였스니 디단이불민하느 연이느 사세가 급박한지라 바라건  
디 슈괴하마음을 바리시고 가심이조금듯하외다

하여천최을 부른다 잇씨천최는 도령님이 오기만고되하노디 두어시간이진도  
록 인적이업는지라 나귀등에 솔질하며 혼조말하기를 녀즈에우름소리를 좇차  
가더니 이이천최로 지금저지 소식이업느 어디가져 보이라하교 점々이느아가  
노디 도령의부르는소리가 는지라천최디답하교 즉시당도흔죽 도령님이교  
군호나만 어더오라 하노지라 천최청녕하교 교군을디령흔죽 요쥬속녀갓흔규  
슈을되시며 도령의집으로 가기를지촉하거늘 천최는동정을모르고명영만쫓차  
급히길을떠나더라

이씨는맛참 추야월삼십일 어두운 기쁜밤이라 사면에자진안키는 슈일시업시  
느리고 인적은 고요하디 밤이깊도록 잠잘줄을이저바리고 무슈이한탄하교 안  
지엿는부인이 잇는디 는이느오십이월신년은듯하교 얼골에는 슈식이만면하엿  
노디 이는죽전기도령에 모친이요 함경도에잇는 리참서 부인김시라라 장성  
치못한 아즈을 먼길에보디고 피탄하기를마지아니하디

머느먼길에 얼마느가져 어느쥬점에서 기숙하노고 아모리영이하다하기로  
잘갈슬난지 알슈업스며 겸하여 나이도어릴쥬 초형인디 안이할말노혹시중  
로에서 병이느아니는는지 이는맛치어린이를 강가에보닐일체라 하여여러  
가지로 사럼이흥중에 비회하니 경々불미 잠을일일수바이업서 초쥬할지음



에 문전에 끼치는 스투는며 나귀에 방울소리 연호야 나더니 부인의 아저가 드러  
오는지라 부인이 되거야 아저에 일호를 무슈이 부른다

이이운학아 이이운학아 이것이 원일이나 종로에서 봉적을 만난나 주점에서  
봉적을 당하야 쫓겨오는나 초행이 되야 길을 아지 못하야 가다가 오는야 정이 답  
々하고나 어서말이느좀 하야라하며 저삼차 무을지음 난디업는 교군이 드려오  
는지라 부인이 더욱의 심하야 교군 을 열고보니 단아한 일위쳐지가 안지엿거  
늘 교군문을 급히 닦치며 운학이를 되쳐하는도다

너도사람의 저손이여든 엿지라 평별아히로 일시춘식을 탐하야 부모의명령  
도업시 너의마음되로 너저을다리고와스니 이는반명하는첩 문중이 일키니로  
하야곰 어저러올지라 의례이 죽보에 제명하고 부모의제1 참여못하는주른  
너도응당알지라 어련하하가 작첩이란말이 무엇안나 이는나의 임의로못할  
지니 속히너여보내고 이밤으로죽시셔나 주야비도하야 부친전에 단여오라  
하며 꽤々이되쳐하시는지라

운학이 망지소조하야 공순이썩러안지며 규슈에익화당하든말씀을하나 유루업  
시하엿스나 청이불문이요 시이불견이라 모친의며령한거역키죄송하야 규슈  
의교군을압세우고 나귀등에 다시안져문전을나서니 규슈에사정이 망단하야

자괴모친의말씀을 조금부족이 생각하엿도다

세상에웃지하면 모친게옵서 그리무정하게 말씀을하시는가 아모리너가온당  
치못흔일을행하엿지만 그논인정상에 의례이행할일이 안인가 나는가면  
다시오련나와 저규슈는 장차어디로가며 어느씨에 다시만나볼고 모친게옵  
서이러한실적에 부친압해는 다시말씀할슈도 업슬터이니 엿지할슈업시저규  
슈에 인명을구원치못하고 홀홀이바일지니 참으로 인정상에 못할바이로다  
하며점점나아가니 눈물은흘너 압길을 헤아일슈업는디 교군속에서 규슈에  
쳐량흔 우름소리는 잠시를원치안는지라

숨흐다 인비목석이 안이여든 휘아니동정을 포하리요 어언간 흥제원에 당도하  
니 숨흐기 청량업는지라

쳐조가교군에 나리여 리랑에 나삼을 휘여잡으면서 귀공은천호몸에 사정을  
도라보시지마옵시고 급히행하옵소서하며 능기여우는지라 운학이 비창함을  
견디지못하야 하는디 먼촌에 계명소리시벽을 보하는지라 천쇠도엽해서々우  
다가 하도핀망하야 도령님을 슈삼차 부르더니 날이말가오는디 길을더나지  
안이하시럼잇가하디 도령이화가 나든츠에 천쇠에말을듯고 모든화를천쇠에  
게다한다



이 무도호놈아 아모리 상한 비이기로 인정조차 다르단 말인나 날이 막지 안아 세  
 상 업셔도 나논이 규슈와 곳치 죽으면 죽었지 혼조는 못가갓다 하며 더욱이 늑  
 기여 우논지라 처조가 도령에 말을 듯고 다텼에 헤오되 나가 만약이 도령에 게 언  
 어를 등치 안앗스면 이언이와 잠시를 보더리도 범상호집사름은 안이요 겸호  
 여언어 슈작이든지 위풍이 늑늑호 장부에 기상을 띄웠스니 리랑은 가위장부라  
 엇지 요망호녀 조로호여 금 장부에 가는 길을 막으리요 하며 강의 키눈물 흘 거두  
 우고

귀공게 읊셔 이와 곳치 호시니 대단이 죄송호오나 엇지 요망호녀 조의 스정을 인호  
 야 부천전에 이르지 아니호리요 바라건대 이 몸은 엇지 호였든지 천만번 회화를  
 당호더리도 사라잇셔 후일을 언약호터이니 귀공게 서는 속히 부천전에 단어와  
 서 모친게 허락을 어든 후 천호몸을 위호여 일초누디에 왕림호심을 바라노니  
 지체치마옵시고 떠나옵소서

운학이 생각호여보니 규슈의 말이 당연호뿐 또호 날이 발가 나왕지인에 이목  
 번다호여 호시슈상호 기척이 탈노될가 서로엮녀호야 규슈에 뒤일을 외론호  
 며 후스기 약을 천만번 당부를 서로호고 섭섭히 리별호나 보논은 규슈에 마음파셔  
 나논도령에 마음이야 서로엮녀호다 고 기록호리오

도령이나 귀등에 몸을 의지호여 주야비도 길을 떠나논터 이석호리별에 흐르  
 논 물은 잠시슈이지 안코호나 나귀등에 떠러지기를 을마나 호였든지 흡스이  
 슝복중에 짐만 이시른 우마와 갓치 물에서 진듯 삼이 난듯 호더라 운학이 여러  
 날만에 합경도쌍에 이르러 조기부천리참서에 게 비알호되 리참서가 아조에  
 모양을 이육이 보더니 별안간 유무죄간에 대호령이나 린다

이번길에 내려오다가 무슴적약의 일을 저와 갓치 호였는나 남조로서 저와 갓치  
 우디호나 엇지 무슴일을 후일에 회호갓는나 주의압첩에 쓴글을 보고 죽시가  
 서 무죄이 죽논 인명을 구호여라 운학이 정신차려나려다보니 난터엮는 글두  
 귀가 씨엮는지라 크게 호호호여 생각호야 보니 이노분명이 규슈와 리별호제  
 쓴글이 분명호지라 그글에 호앗스되

大同江上相逢君      대동강상상봉군  
 弘濟院下更別君      홍제원하깁별군  
 明月何夜不思君      명월하야불사군  
 桃花落地無痕跡      도화락디무흔적

이글애 뜻인즉 대동강상에서 그디를셔로 만나더니 홍제원아리에서 다시 그디  
 을리별호는코나 달발근어 난밤에 그디를 생각지안이호리오 도화가 땅에 떠러짐



이흔적 이업도다 하였거늘 운학이글귀를 니려봄이 눈물이희음업시 흘너옷깃  
슬적시이느니라 조단호야왈 아바님의 명영이 이와갓흘주를 아랏드면 진시  
에다리고 올것을 원동호다 우리규슈여 글들이와갓치 지엿스니 필시에죽  
음이분명호도다호고 부친게하직호고 죽시나귀을모라 대동강으로 형호엿더  
라

잇세규슈는 도령을리별호고 갈바를아지못호야 도령가는곳만 바라보느니  
귀에방울소리가 무정호게 머러져 들이지도 안느니라 슈목스이로 차저가며  
흔조한단호는말이라

하늘에는 불침홍화가잇고 사름에게는 조석화복이 잇다더니 이일이나를두  
고 이튼말이로다 니가지금 집으로 도라가호는 길도조제이 모를썸 또흔  
평별녀즈에 몸이라 더구나 형인이 번다흔디엿지가리오 이싱각저싱각흘것업  
시 죽는것이 맞당호도다 글도마주막으로 지엿스니 하일하시에 도령을어디  
셔 다시만나볼고 아모리박명호다호기로 늘갓흔니가 어디또잇스리요 호  
며 여러가지로 싱각을호다가 문득도령에 이르든말과 흔게척을싱각호고 슈  
목스이에 온선호야 밤되기를 고되호더라

지설잇세 온형지비인에 박명환이는 금단으로더부러 음흉흔게교을 공모호고

규슈을 강간코저 호다가 여의치못호야 방금의논이 분호다 당초에  
금단이 처음늘나아가 제방에서 호을노누어 싱각호야보니 만약이늘 박시 규  
슈와 오늘밤을 갓치지닐것갓호면 연이라호는정이 규슈게 물이여갈터이  
니 그리고보면 나의정이는 무엇이라 할슈업시 될터이로다호고 박시가 규슈  
에방에 드러간지 얼마안이되여 급히드러갓더니 맞참니 일이여의치못함으로  
박시는 금단을간련호야 그날밤에 다시한번나아가기를 간련호고 음흉흔게교  
을 형코저호는디 밤사이에 규슈가 피신함으로 공논이분호호더라

석양석로에 나귀을모라 대동강압해서 방황호며 무엇슬황々이 찾는사름이 잇  
는디 이논리운학이라 무인산중에 정쳐업시바린 규슈을 어디가셔 차지리오 죽  
엇는가 사랏는가 사랏거든 눈압해 선듯보이고 죽어거든 시선이라도 찾게보이  
여라 가련타소져여 나의 모친게옵서 말슴만온화이 허시엿드면 이팔청춘에 땃  
다운목숨을바리며 슌흔원혼이 안이되엿슬길 이연호고는 소져여 뜻과갓치 평  
싱소원을 이루엇구느

할며춤아 도라스지안는 길을회당호야 함경도에 이르러슈삭간공부를 호느디  
엇지소져에 싱각호기에 공부가 착실호리요 싱각을마호나 마호는싱각보담  
오히려 압스는거슨 소져의싱각이요 잇고저호는 이질슈업는거슨 소저로다



어는듯일락함지향하여 서련에저서 황혼이되엿는디 전역연기는 사산에두루어  
 흡사이검은구름이 느리는듯하고 인적은고요한디 바야흐로 소저발을움기여  
 집으로행하는디 규중에만 드리잇는처라 느을적에는 분혼마음에 정신업시  
 죽을곳만찾느라고 아모마음이업섯더니 엿지싱각하고 회정을하는지 거름마다  
 천만스럼이느서 서만벗적하야도 어딿서 사름이오는 락업을조기가 발바소리만  
 느도 뒤에서 누가오는심히 자취업시 거러간것이 한모듬이 두모듬이을 지니조  
 기집에 이르러 후원장담 터진사이로 소리업시거여 드러가 살펴여보니  
 한심하다 어제서지 번창하개 열이엿는 초당문이 첩々이 닫쳐잇는지라 너가  
 엿지향조고 디문밖글 느섯는가 녀조의 몸으로 디문밖글 한번느서면 죽은몸  
 과 일반이라 무슴면목으로 금단이와 지비인을 보리오 너가거짓실성 혼것조  
 치머리를 산발하고 의복을갈々이짓지여 입은후 회설슈설되지못한 소리를향  
 며 양인의 모양도볼겸 도령에말도 연구할겸 장늬을싱각하리라하고 즉시이상  
 혼소리를향여가며 날뛰는도다

금단은 겁이느서 박시뒤로스며 입에담지못할 포악을부리며 박시는남조라 소  
 저를안아 초당속에 누이며 문을첩々닫고 느오는디 맛춤전보 혼장이 오는지라  
 박시 뒤경하야 금히적여보니 진남포(鎭南浦)출장소(出張所)에가서 사오삭잇  
 다오라는금전이여늘 불야불야금단의게 디강일을 부락하고 즉시발등하엿더라  
 잇적금단은박시와신당이 미흡하여 멀이멀이리별을당하니 엿지소저의병을  
 구원할마음이 잇스리요 이면에 못이이여 이슴일동안에는 하로조색을 분명  
 이쥬더니 놀이갈수록 구박은 느러가고 주는거슨 주러간다 삼사일만에 한번  
 밥을쥬거나 말거나하니 성병에먹지못하는 소저의모양이 엿다하리오 삼사일  
 식의레이 먹지를못하니 무슴씩각이 업스며 엿지한심혼 마음이 업스리요 흐  
 르는눈물노버슬습고 절노나오는 한숨으로 벗슬습아 주야장던 우슈스러로  
 지니다가 혹여금단에 소리나며 한그릇밥이라도 쥬면 이를다행이여여먹기  
 는느 연이느 그를바다먹는 심장이참으로 엿다하리오 창밖게서 금단의포  
 달부리는 스리와 말쭉마다 죽으라하는소리 금창은매여지고 간장은 촌々이  
 쏘여진다

덧엿는거슨 세월이라 어는듯 도리춘광이 당도하니 스름업시 춘절을 반가이영  
 접하는것드른 미물에초화라 초당밖게 초화드른 적막한방속에 안져잇는 소저



을여엇보며 반기는듯이 춘식을 자랑하는듯 엇지라 소저는 전성에 무슨리로 이  
성에 성기여셔 이 팔청춘 뜻다운몸이 저고성을하는고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함심으로 볼면날가 쥐면새절가 고이고이 기르실적에  
오날々 이지경에 이를줄뻔에는 뜻하였스리오 일흠을 지으실적에 천만가지로  
싱각할시여 월계라고 하시였는디 월계라 함신뜻은 사시를불고하고 피는뜻  
세 월계꽃이 제일반갑게 다々리 필뻔한이라 연々하고 고흔빛치 녀자의자티  
라하시면서 부모양위분개음서 지여주시더니 오날々 이르러서는 일흠꽃추업  
서질러이니 창립은곱어살피옵소서

정 원 리 천  
원슈에금단이요 무명홀스리랑이로다 그만하면함경도왕복이 되엿슬터인디  
어이혼일인고 홍제원에서 리별을적에 일흠을서로 가라쳐준다 싱년월일을  
서로바꾸어 가지며즉사단여오마하드니 거위반년이지니도록 쇼식꽃추돈절  
하니 참으로알슈업는거슨 사람의마음이라하며 여러가지 슬흔싱각이 흥중  
에 비회하니 다만추업시 흐르는거슨 눈물이라

잇제는춘절이요 만되는적々홀디 춘일이되곤하야 서안을 의지하고 잠시잠이  
드러는사람이 샘작놀나 무슈이 괴탄을하는디 이는 즉함경도싸에잇는 리운학  
이다

세상에 이상한 꿈도만나 더영이죽은 사람인디 사라져 고성을하는것々치 여  
々이보이니 죽지안코 사라져 고성을하는가 만약이 살아잇기만하면 안이찾  
지는못홀지니 죽장마해로 나々々 불원만리 초저보리라하고 날이발근후  
부친에게 작야몽스를 말슴하고 죽시발등하였는디 이는더쳐업는길이라  
하로십이도가서숙식하며이십리가져자기도 주점에뜨러 여러날만에 평양성너을  
에 이르러 월계쇼저의 집을찾는디 남자가업는집임으로 서어이무를슈업서  
주저홀지음

왕디갈기를 손에다들고 제각기망티를둘너매고 몰여오는 목동드리 스름업시  
쇼리를하는디 그쇼리는 참으로리랑에귀에갑히들이연다

불상소호데월々々々 저를상하데 양천부모를 여힌후에 혈々단신외로  
운몸이 무죄이갓쳐잇서 시비에학되로하야 못살지경에 이르렀다네 하는지  
라

리랑이그쇼리 드름이 가슴은너려가고 머리싹흔을나간다 금흔마음갓호면목  
동다려 선후업시 무렷지만 원악이무음이 널분사람이라 텃연이 목동압흐로가  
서 그중에 나히만음죽하야보이는 목동다려를을못는다

여보게 도령네 몸점무러보세 나가이안흐로 지니다가 풍편에드른즉 누집기



슈가 못살지경에 이르렀다고 소리드려하니 나는 이곳이 처음이라 그 소리가 이곳에서 전々부터 일어나려오는 소리인지 시속소리인지 니귀에는 처음들이는 소리라 바라건디 도령에 슈고를 앗기지말고 일시과외에 알려하마는음을 푸러주소서

목동이리랑에 말이하도간절호고로 저세이 되답을한다

우리드리 호든소리가 이곳에서 전々부터 전하야니려오든 소리가아니라 이 근동에 부명을듯고살든 박관윤이라호든 사름이잇는디 그가늑게야 무남독녀 썰하나을두고 이지중지 기르다가 그슈슈가 칠세되즈 모친이 작고호고 썩호 십삼세되즈 박관윤이 도라가고 아모도업시 시비들만 다리고 지니는디 그중 간디평은 자세이알슈업스느 박모라호든 사름이 단이며 슈슈의 집일을 보살 피여주더니 엇지되야셔 박모는 진남포로가고 시비에금단이라호든 년호느썩 인디 별안간 그슈슈는 무슴병이 드렸다호며 초당속에다가두어두고 도모지 도라보노 사름이업시 갓치엿는디 시비라고는단자금단이 호느썩이라 고변은 슈슈를죽이더호든 년이라 먹지못호지가 별셔오륙일이 지니엿다호니 그간죽 지느 안디호엿는디 참혹호일애 우리드리 감동이되야 슈일전부터 자작호쇼 리이요호는지라

리랑이 목동에 되답호는 말을듯고 니렴에 잠시해오디 더목동에되답을 드르니 청사를 아디못호지라 디체집은 어디좀이느되며 초당압장원이 파이놓지느아니 호가호며 목동에게 다시슈슈에 집을 저세이무룬후 감스흙을 표호고 밤되기를 고디호야 월게쇼저에 집뒤에 이르러 이리더리 살피여보이

반갑다 하느님께옵서 도오심이든지 월게쇼저가 리랑을 만느렴이든지 장원이 조금 터지엿는지라 버션발노 고이도러가니 흥격이 답々하다 초당네귀에 달여잇는 풍경드른 술々호 춘풍에 호들이여 덩강／＼호고 요々적적호초당 안은 캄캄하기 금음찰야갓다 저속에 월게쇼저가 드렸는가 뒤에서누가 오지 나 안는가 썰이는 두손으로 뒤창문을 고이／＼두다리며 흥제원에서 이별호든 리운학이가 창밖게왔스니 쇼저는 살앗는가 죽엇는가 살아거든 창문밖그로 니여다보라 호는소리 쇼저에귀에 간신이 들이엿는디 이는맛치 씹속에드른일체라

쇼저가 혼암중 흥제원에서 리별호든 리운학이라 호든소리에 썰작놀느겨우 뒤창문 압호로 기여와셔 창살사이로 앙상호손을 니여밀며 시름업는 음성으로 리랑이밖게오시엿거든 다죽어가는 이몸불살여 주쇼셔호며 늑기여우는쇼디기선업서나오는지라



리랑이 쇼저에 우름쇼리를 드르며 피골이상접흔 손을보니 금창은미여지고 두  
눈은삼삼하다

너가비록 년쇼하는 요마창문이야 박차지 못하랴하며 살피여보니 원슈로다  
창문을 숨지스방으로 첩을박아 좁체로는 열지 못홀지라 한숨을 너리슈이며  
쇼저의 손을잡을지음 잠시혹은애 싸이엿든달이 그후운을다젖치고 반공에두  
러시 쇼샷는덕 요요흔 달빛흔 리운학애 숨흔얼골에 가득이 빗치엿더라

딩신업시 한참 울적에 엿지다른 스름이 엽혀서 그동당을 살피는줄 알이요 금  
단이 제방에서 잠을자다 달이하도발가 무궁흔 회포를 자아님으로 디청압해서  
바덩이다가 풍편에 난디업는 남즈에 음성이 온은이 들니는고로 마음이서늘하  
야 쇼당열을 지니라하는덕 단아흔 일위도령이 쇼저의손을잡고 덩신업시 우는  
지라 금단이더욱 의심하야 혼조싱각을하야본다

디체저도령은 어이흔 스름이온디 규슈와저텃게 이호하는고 전전부터 무숨관  
게가 잇서서 오날날 저와갓저 만남인가 어디저제이 드러보리라하고 온신을  
하야섯는덕 엿지도령과 규슈가 엽헤스름이 이른줄알이요

도령이 나오는 우름을 여제로진딩하고 간신이 말을하다  
쇼저여 쇼저의 그간고쇼을 당함은 노의를찰 혼죄라 이제와서 여초이보

정 원 리 천

천

리

원

정

는것이 디단이 붓그러우니 연이쇼저가 이와갓저 된주른 전혀아지못하고  
단지싱스간 존망을 알고저와더니 천만의외에 창문을숨지스방으로 천을박아  
좁체로는 열지못하거는지라 바라건디 야숙이싱각말고 너일밤사지만 고디하  
면밤에다시와서 쇼저을 귀신도 모르게 구원홀터이니 조금도 염려마옵쇼서  
만악이 이즈리에서 장황이 말을할것갓흐면 도로혀 이롭지 못홀지라 속담에  
이르기를 밤에하는말은 쥐가듯는다 하엿스니 섭섭이아지말고 일쭉야만고디  
하라하며 도라슬제 양인에 마음이 엿더하엿스리오 이는홍제원에서 리별홀  
씨보담 일총더하도다

이에리랑은 쇼저에집 장원을느셔 주점을차지니 밤은임의 갑혀 인적은 고요하  
고 각처주점 은 첩첩이다다 덩이리랑에 마음이 답답할지음 멀리서 불이반적  
반적 빗치이는곳이 보이는지라 리랑이 반가이역여 급히가서 주인을청호하  
파가는오는지라 도령이주파에게 하로밤쉬여 감을청호하로파가우스며왈 노의  
집은 비록주점은 안이요 겸하야 직실이덩치못호지라 연이인딩간에 이만집  
이라도 차더와게시니 도로회 덩하도록은 말숨홀슈업는비라 누추하노드려옵쇼  
서하며 협호하노을 덩결이치여주거늘 도령이반가이역이여 좌덩후 석반을맞치  
고 침석에 누엇는덕 엿지잠을 이룬다 하리요 천만가지로 쇼저구원홀 방침을



구하는디 이윅고 밧게서 너저의 음성으로 문을 열느 하는 소리니 저 옷간의 잠드렸  
든 로파가 황망이 는아가 문을 열더니

에구금단이가 무숨일노 이밤중에 오는하며 방으로다리고오더니 헌겁스럽게  
말할흔다 우리설 금단의얼굴이 요스이로 점々 못되어 가니 는도아다심히 그  
원슈를 엿지흔단 말인야하며 금단의머리를 쓰다듬는다

숨흐다 익히가 미진흔스름은 주악돌할면하면 슈만석을만다하더니 이는허언  
이안니로다 금단이 초당엽해서 쇼저와리랑의 은근이 말하는거슬 엿듯고 저기  
도 한갓계교를싱각하고 로파의집에 이르렀는디 이로파인즉 금단에 슈양모요  
쇼저의 집에잇든 이전유모라 금단이스면을 도라보며 로파에 손목을잡고입은  
그귀에다 디엿는디 무숨말인지 한참동안하며 로파는조로입에는 우숨을 썬우  
고 고기를 씹덕이더니 금단을 다리고 도령이잇는방 엽호로오더니 장지스이로  
드려다보며

의외에 형인하느이 왔는디 네가말하든 스름과 방불하야 의복입은것과 는니  
도비슷하니 그스름인지는 모로겟스니 저세이보아라 금단이한점보다 더경하  
며 말이 안더니 또호무숨말할은근이하며 인히이러서서 는아가면서 연히당  
부하기를 너일전역에 억이지말고 그랬케 하세요하며 금단은 도라가는디 또

호얼마아니되야 남저의 음성으로문을 열느하여 드려오더니 로파의게향하야  
어머님지금 드려오다 금단을만느서 말을드른즉 월게쇼저를보고 이악이하든  
스람이 집에잇다는디 그도령을 엿지하야 달느하니 그게무숨말이에요 로파  
가 그스름의엽을찌르며 손을드러 험호을가라치더니 더방에잇스니 찌드지말  
고 고이하야라 는도듯기는 하엿다마는 웃지무죄흔 스름을 죽인단말인야 너  
가늑도록 죄가만아 고싱하는 싱각을하면 참아못하겟다마는 네도아다심히싱  
활상 곤난으로하야 악척흔이을마즈하느 원슈의금전이 식히여주는교로아니  
할슈업스니 너일 밤에가서 장원 스이로 드려오거든 작담제하고 여초하렴으  
느하며 모즈양인이 한참동안이나 이악이을 하더니 잠이드렸는지 코요하다  
리랑은 잠을못조고 가진싱각을하든초에 로파양인의 이와긋치하느말을 헛코를  
고라가며 디강소리를 엿드렸스니 그마음이 엿더하리요 잠시간에 런던가지싱  
각이 흥중에비회흔다

이상하고 공교하다 원슈는외나무다리에서 만는다하더니 이는나를 두고이른  
말이로다 주점을찾는다하느것이 하필이집을 드려와저와 이갓흔말을 드려스  
니 이를엿지하면 조홀고 월게쇼저를 구원하거는 고스하고 이몸이먼저 어는  
지경에갈지 모를지니 이밤으로 도주를 하엿다가 차차보아서 쇼저를 구원함



이 좇쳐아니한가 만약이 피신은 동안에 무슨 불의한 일이잇스면 이는 허망구실이라 실노량난이니 엇지 홀고 장부에 마음이 이와 저지 험박하야 이런일을 주저함은 도로혀 나의량심에 못그러운지라 한번결단호 뎡음을 돌이켜 소저를 구원하리라 하고 뒤문을 고이열고 나서려하니 흥격이 답답하고 압길이 캄캄하고 회여잡고 쓰라오며 처량하게 우는소리 두귀에 역역히 들이듯 참아거름이 아니길이인다 리랑이 가든길들 멈추면서 다시 생각하되 내가 지금 가다가는 잡히기 쉬울지라 날이 발근후 연연이 떠는 리라하고 도로드러와안져 날이 발길을 고되하느니 먼촌에 계명쇼리느며 형인의 자취쇼리 연하야 들이인다

연연한안식으로 로파의주는밥을 먹는체하고 밥갑술세음후 길을떠난느니 도령싱각에는 함지를 버는듯하고 로파에 싱각하바는 비록네가 이집을 떠날지라도 오늘날만되면 기암이 데박퀴 돌듯도라드러 소저의집으로 올터이니 곳셔는 그 물에든 식와일반이라 네가 간들아쥬가지는 못올지라 네밤에 다시보자하고 외면으로는 섭섭이 작별을 하엿더라

어는듯들은점으러 먼터사람은 보이지안을만치 되엿느니 무도호로파의 아달삼보라 하는놈은 거적호입마라셔 엽헤끼고 손에는 조고마호 단도하는을 들

고 월계소저의집 장원엽헤셔서 리랑이 드러오기만 고되하느니 밤은이식하야 삼스경에 이르고 인적은정이고요하다

가련타월계소저는 전후스를 아지못하고 창살사이로 너여다보며 철년디한에 빗발갓치 구년장마에 헛빔갓치 리랑오기만 고되하느니 켜는 점점무정하게 슈이도라 사오경이과하엿고 리랑의흔적은 보이지안느니라 소저기신업는음성으로 자탄을한다 세상에이상한 일도만타 리랑으로말하면 의리가당々호장부라 응당을터인디 날이박도록 오지를아니하니 팔연코 무슨일이 잇셔셔아니오시는가 머는먼길에 오시엿다가 밤스이에 로독이느시여 못오시는가 기간쇼々호 일노는 아니오실이만무홀디 아니홀말노 어제밤에하든말을어느누가듯고 리랑호히코즈하야 피신을하엿는가하야 여러가지로 염여하느니 어는듯스름의 두련／＼하는 소리는며 놀이혈신박느니라 쇼저는무슈이 넘려하

다가 다만탄식하며 숨은눈물만 흘닐사람이요 숨보와 금단은 밤식도록 고되하다가 도라가느니 하회가장차 엇지될고

차설잇셔리랑은 로파의집을등지고 차점／＼나서나 거름마다 한숨이오 회쑈회쑈보이는거슨 소저의용모라 다른주점을 차저가서 주인로파에게 공연호 금전을무슈이주며 월계소저와 조기의관계를디강설화후 밤에가서 규슈의집동정



을 살펴오라 하였더니 놀이발근후로파드러오며 리랑에게 형하였을

어제밤에 규슈의집 후원뒤로가서 감안이 살펴보니 다른사람은 아모도 업고 다만삼보라 하는놈이 있는디 거적호입은 마라셔 엽해다끼고 한손에는 조고 마흔 단도를가지고 후원장담 러진스이로 연히 넘어다보며 암아도령님 오기를 고티는 모양인디 밤식도록 있다가 놀이발근후에야 도라가기로 로구도 지금에야 왔슴이다마는 함아하드면 도령님 게음서 흉악한 할지에 싸지실변 하였소이다

도령이 로파에 전하는말을듯고 무슈이괴탄을하다가 다시한번규슈에 집에가셔 규슈는 었지되었는 지세이 알고오기를 청하였더니 이윽고로파드러오며 급한말노 도령님을 무슈이부르며 로파가규슈에 집을가속더니 진남포에갓든 박시가 서을노을나가게되여 소저와금단을 다리고발령 하였노디 그딕소저야 말노 불상하와요 전일에그리곱든 일골은조금도업고 었지면슈작간 교초을몹시 당하였든지 피골이상연한일골은 눈을드러바로보지 못하겠세요하며 로파도 스름업시 눈물을 흘리는지라

도령은 노파의말을 드름이 가슴을무엇으로 지르노듯 더욱이 소저에 용모가 나타나듯하야 창문을열고 먼산만바라보더니 무슴싱각을 하였는지 로파에

게 후이상급을주며 분주이작별하고 문전을떠났다

이에 월계소저는 박시를싸라 경성에 이르렀는디 소저는 싸로이 집을명하고 늙은로파하와 갓치잇는디 주야장단에 리랑에하회를 아지못하여 남모르게 속으로 은근이근심을하는 었지규중에드러잇서 심복지인업시 리랑에 쇼문을어더드리요 하로박시에게 말을하여 공부하기를 청후후즉시 녀즈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는디 무슴공부에 마음이잇스리요 슈작간 조유헌동하며 형기를흔죽 비록몸은충실하였는 오히려남아잇는 근심은흔두가지가아니로다 을하흔마음을 참지못하야 처상을의지하고 정신업시안젓는디 학교에갓치단이는 동모가 와서 공원으로 산보가기를 말하거늘 소저답하흔차에반가이역여 이삼인이 작디하야 남산공원에 이르렀는디 월계소저는 공원이란곳이 처음이라 켜는황혼이오 길가에 전기등과 장명등불 빛이 점々발아지고 동방에월석도 발아지며 서너간동안에 잇스름은 일골이 지세이보이지안올썩이라 락々흔 늙은소는 무서너키웁어진아리 스모정안에 들너노고교의에 는 월계소저와 두어스름에 녀학성뿐이라 맑고희게 밝은달은 중원에 소스잇고 간々이솔가지올 약간흔들고 지니가는 바람소리는 쓸々하며 소저에 슬픈마음을 도읍는지라 두녀즈는 흔테락락하는 소저는 오히려 정신이업서 지고



숨은 마음이 감동될제 불여오는바름은 옷깃슬 스름업시 잊치고가는지라  
아리로멀이 너려다 보이는한강물은 길게누어잠드릿고 강언덕에 전연안키는  
몽롱하여 회장을 두르는것 못흔중 경성시가 만인가호는 연기에잠겨있고 등  
불빛만 총총흔디 더기가우리의 스름드리 일하고 밤먹고 공부하는곳인가  
연한경치를 쳐음디흔는 월개쇼저는 뜻업는눈물이 스스로써러진다

즈기에팔자를 한탄하며 두스름이 흥을불가 더어홀지음에 이삼간동한압호로  
단아흔 도령하느이 지니가난디 쇼저 도그스름을 우연이보고 그도령도 쇼호  
쇼저를잠시 보았는디 남모르는 눈은서로 마주치며 은근이 눈으로인스을서  
로건너인모양이라 쇼저는 가슴에서 무엇이 써러지는듯이 놀느이며 너럼에  
잠시해오디 저리랑이 었지하여 여기저지 왔슬가 필시는느의 종적을 찾고저  
하여 이에이름인디 무슴말노 두녀즈을 속여 보너일고하여 여러가지르 생각  
을하는디 도령은 그압으로 조왕리를하며 너럼에잔탄하기를 마지안이하다  
너가 평양셔 올느온이후 오류사를 두고 차져보아도 보자 못하겟스더니 었지  
하야 오늘와셔 저모양으로 공원에서 만났슬아랏스리오 더두녀즈로 하여말  
을못하니 압호를하여 월개쇼저만 알게하리라하고 저기의손수건을 쇼저만보  
게 써러트리코 밀이안지며 동당만 보는디 얼마아니되여 월개쇼저가 이러나

며 남이알세라 알는집은후 두어동모와 갖치회당을 하는지라

소저동모를 이별하고 집에도라와 저기방에서 홀노안저 도령의나려트리든  
수건을살펴보니 그글에하엿스되

평양셔소저를 구원하려다가 호스다마로 하필주점을 잘못차져 공교이삼보에  
집에드러 금단이와 삼보모자의 요약흔 계교의 말을늦고 이몸을피신하야 소  
저의몸이엇지되엿는 심복지인을 보너여 소문을드른즉 그날밤에 소저는 무스  
이지냈스느 불시에박사가와셔 나저을다리고 상경하엿다하거 그날노즉시올  
느소저를 차져보려하느 오류삭이 진하도록 어디잇다는 소문도 못듣기에 다  
시는보지 못홀줄알랏더니 턴만의외에 하느님께옵셔 우리양인의 정상을살피  
시여 공원으로 지시를 하셔엿는지 하도회한하여 뉘속인듯 헤아릴슈업도다  
오날밤 달빛해 소저의옥안을 슬퍼보니 전일초당속에서 고초을 당홀씩 보남  
피골이 상전치 안음을안니 이니 마음에 반가움은 혼북되로 었지 기록을하  
리오 연이느 세상에 답하흔 뜻도 만토다 눈은서로 마주치여 남모르느은근  
흔인스는 눈으로먼저 전흔인듯흔디 었지다조션구풍을 인연하야 이십세기차  
시디(二十世紀此時代)에 언어를 통치못함은 오히려 붓그러운일이라 연이나  
그는 보통의 인지상정이라 바라건디 한번초보를 앓기지말고 오는도요일밤



에 이몸의 바라는 성심을 저바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팔모덩 안으로 오심을  
 려만 바라옵니다

천

하였는지라 보기를 다한후 즉시접어 저기가 공부하는 책속에너어두고 여전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몇칠을 하였던지 어연간 토요일이 당도한지라 그들은  
 마음이조연 슬란하며 급급히 학교에 이르렀는데 엇지리랑의 편지를 너어둔책  
 이 빠지며 악마코흔 박시가 저기방에와서 보는줄알이오 음흉한박시는 소저의  
 집에을 미일오며 홀노잇는 소저을 위하는듯 남드리보게는 인딩이잇는듯하느  
 속에는 가진흥계가 비회하는 큰악마로다 이책도 보며 더책도 보는데 난디업  
 는 편디한장이 책스이로부터 썩러지는지라 얼는집어 살펴보니 평양셔 삼보가  
 죽이려하는 도령이 분명한지라 도령의 성명을 저세이 적은후 여전이 늦코 저  
 기집으로 도라갓더라

원

정

숨흐다 익회가 아죽도 미진한 소저는 학교로부터 저기집에도라와 리랑의썩  
 러드리는 슈건을접어 몸에다 간슈하고 놀이점은후 즉시공원에 이른즉 리랑  
 은언제와서 잇섯는지 얼골을마쥬디힘이 붓그러운 저티는은스이낫다 느는지  
 라 슈괴함을 참고 리랑을싸라 슈목스이로 드러가는디 옥어진장송은 울썩창  
 々하고 잔디논이슬에 저썩잡을일운듯이 잔々한대 양인의덩의세담은 엇지다

기록을 할리오

천

리

원

정

35

나는 얼마아니되여 부모의명령으로 경성을리별하고 멀리멀이일본으로 유학  
 을하러 갈터인데 규슈의 생각을흔즉 덩신이아득하며 그간모천에게 말슴을하  
 였더니 부친이 도라오시거든 결혼하도록 힘마고 반허락은 하시엿지만 나의  
 썩늘스이 인박하니 이와코치라도 규슈을보지못할지라 바라건디 규슈는천금  
 코흔몸을 경솔이여이지말고 나의도라움을 고디하소서 만약이중간에 무슴익  
 회가 박두할지라도 전과코치 한줄기 오락이로 싯다운목숨을 자결코저 마시  
 고 이몸을 고디하시면 창던이라도 감동되시여 소저의 익회를 방어할지라  
 비록나의 성심은 적다할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니 부디조심 하소서하며 늘  
 길지음 눈물은 자썩썩러지며 양인의리별을 지촉하고 슈목스이로 사람의 자  
 취쇼리는 점점갓가와 지는지라 리랑이쌈작놀느 피신할지음

나이는사십이 월선님은 일위남자가 소저압호로 느스며

오늘은엇지하여 이와갓치변화한 공원에을 홀노왔느냐 그러느얼골에 눈물은  
 적이잇스니 혹여무슴 불편한일이 잇슬것갓흐면 나의게다 말할지 왕리지  
 인이 번다흐곳에서 절문너저가 홀노안저우니 엇지남드리 슈상이 엇지안  
 으리요 향차너저의 죽분을 생각할것갓흐면 오히려 붓그러워나오는눈물을



저어홀지라 너는 무슨 일에든 지을만흔 일이잇서서 우러갓지만 보는사람드리  
야 엇지너의 회포를 알고저 그우는곡절을 못지안을 사람이업슬지라 천만의  
외에 망영된일을 형치말고 집으로 가자하며 규슈를 압제우고 도라가는지라  
리량이 분하고 원통한마음에 소리를지르며 놀느니 쇼저을 못잡은체 정선  
이 아득하엿든 모양이라

전신에 섬을홀이며 쇼저의손을 다시잡더니 쇼저여 쇼저여 우리가차이말하  
는거슬어느누가 평양서 처럼 엿든는지 정선이아득 하야지며 여초흔게보이  
니 그보이든사람은 어림컨디 박시라 장황이말을 못홀지니 쇼저는후일을성  
각하고 쌀이도라 가소서 속담의이르기를 길흉화복은 정흔리치라 하엿스니  
허다일을을 지낼것갓흐면 만흔흔 자연이잇슬지라 바라컨디 쇼저는무슨일  
이 박두을흔는지 참을인즈를 생각하소서하며 쇼저의 손을잡고 팔모정을 썬  
느 각기집으로 회당하엿스니 하회가 장차엇지될고

슬흐다 호스의다마는 운종봉 풍종호곳치 싸라 단이느지 음흉디담흔 박명환  
파 삼보양인은 팔모정뒤 슈목스이에 은신하야 도령과 쇼저의 허든말을듯고  
집에 도라와 삼보올보며 너도그도령을보고 허든말도 드렸건이와 슈일간 너  
지로 류학을 간다하니 너는 일본으로 가셔잇다가 엿츠／＼ 혼연후 도라오라

하며 돈박원이나 주엇더라

공르는물갓치 잡시를취지안코 가는거슨 세월이라 어는듯쇼저와 리량에리별을  
홀지가 일연이과하엿더라 셔는춘말하초(春末夏初)요 놀은맛참 일요일이라 월  
계소서 정원에서 바정이다가 무심이집뒤를 쳐다보니 슈를노흔 병풍과 그흔  
부악산이 들녀잇고 압혜는 경성에서가々 눈아리 쌀이엿으며 정원에는 여러가  
지꽃이 만발하야 고흔빗슬 자랑하느디 호접들은 제흥을못이여 썬속으로 나  
라단이고 황조는 나무틈으로 왕리를흔며 벼줄부르고 만물이모다 셔을만는듯  
이셔로질기여 자랑하느듯 혼지라 견물심심으로 쇼저여러가지고흔 썬홀거거  
가지고 이옥이보더니 무심싱각을 하엿는지 벌안간 두눈에서 주옥갓흔 눈물이  
방울／＼ 썬러지며 홀々느기더니 자란을하느도다

오늘々 엇지하야 나에팔자가 이지경에 이르렀는가 이전평양 집에서 무죄이  
갓치여 요악흔금단에게 학대를 받든일과 또흔박시에 음흉이하든 싱각을하  
며 오히려 기가막기여 일시라도 지레치말고 죽을것이로디 지금것목숨이보  
전하야 잇기는 리량에도라볼을 인연하고잇는비라 하일하시에 나에지산을차  
지며 리량은어느썬에나만느볼고 벌셔류학간지가 돌시되여 을치침여일만지  
니면 방학이될터인디 곳셔와서 잠시라도 단여가려느 처즈에 말하바느안이